

# 광산구-의회 '생활폐기물 1일 수거제' 추경 놓고 충돌

### 광산구 "생활폐기물 미수거로 주민불편 민원 폭증 긴급 추경 필요" 구의회 "예산안 통과 한 달여 만에 추경 사례 처음 '부적절' 거부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가 새해벽두부터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은 뒷전인 채 예산배정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광산구는 생활폐기물 미수거에 대한 주민민원 폭증에 따라 '생활폐기물 1일 수거제' 시행을 위한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의회는 본 예산 편성 1개월만의 추경 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승자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광산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추경안 심의를 요구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 의장단과 예결위원장 등에게 추경편성의 시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추경안을 심의 일정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이후 김태완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이 1월 추경이라는 집행부 예산안 편성안을 문제 삼으며 본회의 상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결국 광

산구도 자진 철회를 결정했다.

철회한 광산구 추경안에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쓰레기 1일 수거제' 시행에 따른 적정 수거산출량 및 필요 인력에 대한 용역비와 친환경 수소청소차(10t) 구입비 등 28억원이,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67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2024년 본 예산편성 당시 예산 부족에 따라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로, 이후 국·시비와 특별교부금, 교부세 등이 확정됨에 따라 긴급하게 1월 추경을 편성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 한 달여 만에 추경을 하는 것은 광산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사례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산구는 한해 4000건이 넘는 생활쓰레기 미수거에 대한 민원 및 시민 생활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1월 추경을 주장해 왔으나, 이 같은 일부 구의원의 반대에 따라 오는 3월 본회의 때 추경안

을 올리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25일 간부회의를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이 왜곡되면서, 또 다른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박 구청장 발언 중 '한 사람이 짜지우지', '국회의원 아래 시의원과 구의원'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들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구의회에 전달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광산구는 해명자료를 내고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독재국가나 다름없다는 문제의식을 말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공직자들도 함께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결단코 구의회를 겨냥하지 않았으며, 자치분권의 필요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모든 권력이 1인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한 것"이라며 "이번 1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구의회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왜곡된 사안에 대해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제3기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들이 지난 25일 광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여해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 층간소음·흡연 등 생활 속 갈등 해결 지원

### 광산구 3기 이웃갈등조정가 10명 선발... 위촉식 갖고 본격 활동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생활 속 다양한 이웃과의 갈등 해결을 돕는 광산구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들이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31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25일 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제3기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한 이웃갈등조정가는 10명이며, 광산구 '이웃갈등조정가 양성 교육' 수료자 중 실천 역량을 갖춘 이들을 선발했다.

광산구는 2018년부터 5회 동안 '이웃갈등조정가 양성 교육'을 운영하며 층간 소음, 흡연, 주차 문제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길러왔다.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는 실제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통하며 갈등의 실마리를 푸는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까지 이웃과의 분쟁, 갈등과 관련해 접수 민원만 총 266건으로, 이웃갈등조정가가 나서 진행한 조정회의는 177회에 달했다. 이를 통해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23건의 합의문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올해 위촉한 3기 이웃갈등조정가들도 광산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협력해 시민이 이웃과 겪는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 월곡1동·수완이지더원·임방울거리

광주 광산구는 "월곡1동, 수완이지더원, 임방울거리 등 3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광산구 골목형상점가는 2000㎡ 면적 이내 상업지역의 경우 30개 이상, 상업지역이 아닌 경우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각종 정부 지원사업 공모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2021년 산정상인회를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광산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 절차 간소화하고, 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이후 월곡1동, 수완이지더원, 임방울거리 등 3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난 23일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곳 모두 지정 의결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상인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권 활성화 노력이 시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형상점가 추가 발굴과 더불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산정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에 선정돼 79개소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임영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지난 30일 '생활쓰레기 일일수거제' 정착을 위한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생활쓰레기 일일수거제' 정착에 최선 다한다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영해 수거 역량도 높여갈 계획이다.

공단은 또 처리시간 외 발생한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가동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처리 후에는 반드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해 민원 불신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한 설 연휴 생활폐기물 비상대책도 마련해 설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영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반드시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단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시민안전위 통과

### 운영일 광산구의원 대표발의

운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 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평가단 구성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로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사후관리계획에는 기반 시설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계획, 도시쇠퇴 방지 계획,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계획수립일부터 1년 이내 평가단을 구성하고 3년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 활동,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주민 교육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협동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운영일 의원은 "광산구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3곳 중 2곳이 올해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후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공동체 기능이 향상되고 지역맞춤형 도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